

# 만세와 광복의 합성, 진안에 울리다

오늘부터 진안역사박물관서 항일운동과 3·1운동 관련 자료 전시

진안역사박물관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전인 '만세와 광복의 합성, 진안에 울리다'를 오늘부터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1919년 일어난 3·1운동과 이를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진안의 항일운동과 3·1운동 관련 자료를 전시해 주목받고 있다.

진안의 항일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편암 최익현의 영정과 1925년 이후 진안에 머물며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후산 이도복의 영정이 전시된다. 이들 자료는 영곡사(靈谷祠)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들로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선보인다. 후산 이도복이 남긴 문집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진안 출신 항일지사 중 한명인 지산 이호용 관련 자료도 전시되며 이호용은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봉좌마을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주서(注書)에 이르렀으며, 1906년 최익현의 중심으로 일어난 태인병에 진

안출신 독립운동가인 습재 최재학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가 전영상 영정 등이 전시된다.

진안에서는 3월 25일 진안읍을 시작으로, 4월 주천면과 마령면, 성수면 등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전영상은 오기열, 황해수, 김구영 등과 4월 8일 일어난 진안 마령면 평지리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독립운동가 김영필을 심문하던 일본인 순사를 제지하다 목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김규현의 편지글과 전주시법대학 재학 중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하고, 3·1운동 정신계승을 위해 독립선언서를 작성·배포하려던 독립운동가 안일의 정천공립보통학교 시절 통신부 자료 등도 전시된다.

이번 특별기획전 전시는 오는 6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의



열망과 합성을 진안에서 느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심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 2019 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 더 원'을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태권도원 T1공연장에서 진행한다.

## 내일 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 더 원' 개막

격파·품새·국악 어우러진 퍼포먼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19 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 더 원'을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태권도원 T1공연장에서 진행한다.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에서는 올해 상설공연으로 '태권도로 하나가 되는 삶'을 의미하는 '태권 더 원'을 선보인다.

재단과 (주)비가비퍼커니가 함께 진행하는 '태권 더 원'은 고난도 격파와 창작 품새, 국악장단을 활용한 타악·사물놀이 등이 결합된 태권타악퍼포먼스로 30분간 진행된다.

태권도의 강인한 힘과 신명나는 국악장단은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관람객들에게 쾌감과 경이로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권 더 원'이 끝난 후에는 단원들과 함께하는 기념촬영과 태권도 수련 여부에 관

계없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태권도 체험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도 있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 더 원"은 태권도와 국악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외국인들에게는 문화전달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온 가족·친구와 함께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느끼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원 상설공연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꿈나무들이 들려주는 봄의 소리'

소리문화전당서 초록우산 드림국악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열려

초록우산 드림국악오케스트라는 오는 3월 2일 한국소리문화전당 연주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 '꿈나무들이 들려주는 봄의 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완주군에서 주최하고 진흥문화마을에서 주관하는 초록우산 드림국악오케스트라는 IS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농촌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즐겁게 배우면서 사회성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전북의 초록우산 드림국악오케스트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초록우산의 전국 11개 오케스트라 중 국악을 중심으로 편성된 유일한 국악오케스트라로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등학교 어린이 48명이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 판소리 등 8개 부문으로 국악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다. 지도감사는 오디션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갖춘 국악전공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초록우산 드림국악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는 강성오 지휘자를 중심으로 48명의 참여아동이 기악부, 창악부, 사물부로 편성되었다. 공연프로그램은 1악장 정악연주(영산화산 中 타령), 2악장 남도민요(성주풀이, 진도아리랑), 3악장 삼도설

장구, 4악장 창과 관현악의 신사철가, 5악장 사물놀이협주로 구성된다. 초록우산 드림국악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소리, 함께 함으로써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토를 가지고 이번 정기연주회를 준비해 왔다"고 전하면서, "아이들의 기대와 노력에 부응하여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감사진과 기획진이 함께 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김관영 의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확보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전북 군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28억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은 내화 역사문화공간,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둔율동 성당 등의 종합정리계획 수립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종합정리계획은 해당 문화재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이번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관영 의원은 "올해로 개항 120주년을 맞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물

론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군산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이번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보를 군산 시민과 함께 매우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군산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 12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은 군산시 소재 등록문화재, 사적, 보물, 명승 등의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보수정비에 사용되며 국비 보조비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70%, 등록문화재와 전시관 유지 보수사업의 경우는 각각 50%, 30%이고, 지방비 보조비율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50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